1. **민족 운동의 분화와 실력 양성 운동**
2.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1. 배경 : 서구 열강이 파리 강화 회의와 워싱턴 회의 등에서 한국의 독립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국제 공산주의 조직인 코민테른 등이 약소민족의 해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유행하기 시작.
   2. 활동
      1. 독서회,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 연구
      2. 노동 운동, 농민 운동 등 각종 사회 운동 주도 및 활동 지원
      3. 조선 공산당(1925.4.) 결성 -> 코민테른에 의해 지부로 승인받음 -> 일제는 치안유지법(1925.5.) 제정하여 탄압 -> 조선 공산당 해산 (1928)
   3. 영향
      1.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농민과 노동자 해방을 주장 -> 지주 및 자본가가 중심이었던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과의 대립이 잦아짐
      2. Bc : 1920년대 이후 독립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

\*\*\*동아 일보 사설 (1925.9.27.)

“현하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다. 하나는 민족 운동의 조류요. 또 하나는 사회 운동의 조류인가 한다. 이 두 가지 조류가 물론 해방의 근본적 정신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왕왕 운동의 방법과 이론적 해석에 이르러서 털끝의 차이로 천리의 차이가 생겨 도리어 운동의 전선을 혼란스럽게 하여 당파적 분규를 소생케 하여 결국은 어부의 이를 취하게 골육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통탄할 바가 아니랴…

1. 물산 장려 운동 : 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
   1. 배경 : 총독부의 관세 철폐 -> 일본 기업 한국 본격 진출 -> 영세했던 한국 기업들 위기
   2. 내용 : 토산품 애용 운동 ( ex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3. 전개 :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 (1920) 조직 후 물산 장려 운동 전개 -> 서울에서도 조선 물산 장려회 조직(1923) -> 물산 장려 운동의 전국적 확대
   4. 한계 : 늘어난 수요만큼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가 상승 -> 사회주의자들의 비난 “자본가 계층과 상인 계층을 위한 운동에 불과하다. “ -> 소비자들도 점차 등을 돌리며 침체
2.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
   1. 한국인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고자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조직(1923) -> 모금 운동 전개 (ex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 총독부 방해, 참여 저조로 중단 -> 일제가 설립한 경성 제국 대학(1924) : 철제한 일본식 교육, 한국인의 고등 교육 열망 무마
3. 농촌 계몽 운동
   1. 문자 보급 운동(1929) : 조선일보 중심, 한글 교재 보급, 전국 순회 강연회 개최, 구호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2. 브나로드 운동 (1931) : 동아일보 중심, 문맹 퇴치와 미신 타파 목표,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에서 한글 가르치고 생활 개선 운동, 구호는 “배우자! 가르키자! 다 함께 브나르도!!”
4. 자치 운동
   1. 내용 : 독립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인 채 조선 총독부와 협력하여 ‘조선 의회’를 설립하고자 시도(오늘날 영국 내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와 비슷한 구상)
   2. 배경 : 1920년대 중반 총독부와 일부 일본인들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분열시키고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게 자치 운동을 공공연히 부추김
   3. 전개 : 이광수, 최린, 김성수 등이 주도(‘실력 양성 우선론’, ‘단계적 운동론’) ->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자치 운동을 격렬히 비판 -> 일제도 운동 부추겨놓고 실행 미루다가 대단히 후퇴한 내용 제안 -> 자치 운동 사실상 좌절 -> 이를 주장하던 세력은 1930년대 이후 점차 친일
5. **6.10 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신간회**
6. 6.10 만세 운동
   1. 배경 : 순종 사망 -> 사회주의 계열 (조선 공산당 중심) + 민족주의 계열 (천도교 등) 만세 시위 계획
   2. 준비 : 천도교 청년회가 인쇄하기로 한 격문이 사전 발각돼 일제에 압수, 조선 공산당 간부들 체포, but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등 학생 조직들은 발각 x -> 예정대로 시위 준비
   3. 전개 : 순종 장례일 (1926년 6월 10일)에 학생들이 격문 뿌리며 만세 시위 주도 -> 전문학교와 고등 보통학교 학생 등 200여 명 체포
   4. 의의 : 학생들이 항일 민족 운동의 주체임을 자각,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단결 토대 마련
7.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 배경 : 6.10 만세 운동 이후 전국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독서회를 비롯한 비밀 결사 결성 -> 동맹 휴학 주도(식민지 노예 교육 철페, 수업 중 조선어 사용 등 요구)
   2. 전개 :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 희롱하여 한일 학생 간 충돌 발생 (1929.10.30.) -> 일본 경찰의 편파적 수사 -> 광주 지역 학생들(성진회와 여러 독서회가 주도) 대규모 시위 전개 : 민족 차별 중지, 식민지 교육 철폐 요구 (11.3.) -> 전국 확산 (12월 초)
   3. 의의 :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
8. 신간회의 창립
   1. 국내 배경 : 실력 양성 운동(물산 장려 운동,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의 좌절, 이광수, 최린, 김성수 등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자치론 주장, 치안 유지법 등으로 사회주의자들 탄압 ->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할 필요성 느낌
   2. 국외 배경 : 중국의 제1차 국공 합작, 코민테른의 민족 통일 전선론, 중국 관내 독립운동가들의 민족 유일당 운동 등도 영향 미침
   3. 전개 :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조선 민흥회 결성 (1926) -> 사회주의자들의 정우회 선언 :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 주장 -> 신간회 창립(1927, 회장 이상재, 부회장 홍명희), 전국 각지와 일본에 지회를 두어 활동

\*\*\* 정우회 선언 (1926)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도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하여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 신간회 강령(1927)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4. 신간회의 활동과 해소
   1. 사회 운동 지원 :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 후원, 함경남도 갑산군 화전민 사건 (1929) 진상 규명,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조사단 파견 후 민중 대회 개최 계획 but 간부등 체포로 불발
   2. 해소 : 새 집행부가 일제와의 대결을 피하고 온건한 방향으로 전환 시도, 타협적 합법 운동 주장, 코민테른의 노선 선회 (“계급 > 민족”) -> 사회주의자들이 ‘해소’ 주장 -> 전체 대회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반대했으나 가결되어 신간회 해소 (1931)
   3. 의의 : 이념을 넘어선 민족 협동 전선 결성의 대표적 사례, 일제하 국내 최대 규모 항일 운동 단체
5. **우리의 역사와 언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
6. 일제의 식민 사관
   1. 조선사 편수회 : 3.1 운동으로 놀란 총독부가 민족정신의 뿌리인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1925년에 설치. 한국 강점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 식민 사관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를 정리한 ‘조선사’를 편찬

\*\*\* 이병도는 실증사학자로서 현대 한국사학의 태두 but 조선사 편수회 근무 행적 -> 친일인명사전 등재.

* + 1. 타율성론 : 한국 역사는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므로 주체성과 독자성이 없다는 논리
    2. 정체성론 : 일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이 시대별로 발전을 거듭한 데 반해 한국은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었다는 논리 (마르크스의 유물 사관을 악용)
    3. 당파성론 : 조선 시대 붕당 정치를 당파 싸움으로 규정하여 한민족은 늘 편을 갈라 싸운다고 주장하는 논리

1. 식민 사관에 맞선 주체적, 발전적 한국사학
   1. 민족주의 사학 : 박은식, 신채호 등이 정립한 근대 역사학,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역사 연구
      1. 박은식 : ‘한국통사’ -> 일본의 침략 과정 폭로 / ‘한국독립운동지혈사’ ->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
      2. 신채호 : ‘조선사 연구초’, ‘조선 상고사’ -> 한민족 고유의 문화전통과 자주역사 강조
      3. 정인보, 안재홍 : 실학자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기념하여 1934년 ‘조선학 운동’ 제창, 이후 조선 후기 실학의 학문전통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됨.
   2. 사회경제 사학 : 백남운이 마르크스의 유물 사관에 바탕을 둬 내세운 한국사학 방법론 / ‘조선 사회 경제사’,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에서 한국사도 유물사관의 역사 발전 5단계에 따라 보편적 세계사와 마찬가지로 발전해왔음을 강조. / 조선은 일제가 아니어도 근대화를 이뤘을 것이라는 자본주의 맹아론, 일제의 식민 사관 중에서도 정체성론을 정면 반박한 것.

\*\*\* 유물 사관에 따르면 역사는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공산주의’의 5단계로 발전한다. 서구 역사에 들어맞는 이론일 뿐 세계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이 오늘날 상식이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배 정당화를 위해 이용했고 일제도 따라하였다.

* 1. 실증 사학 : 이병도, 손진태 등이 정립한 근대 역사학 / 문헌 고증을 통해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한국사학 방법론 / 1934년 진단 학회 조직 후 ‘진단 학보’ 발행

\*\*\* 이병도는 해방 후 서울대 사학과를 이끌며 국사학의 태두가 됨. 게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민족주의적 학풍과 마르크스주의적 학풍은 사라졌기에 이병도의 실증사학이 오늘날 국내 한국사학계의 틀이 됨.

1. 우리말과 한글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1. 주시경 : 20세기 초 한국어 최고 권위자. 1907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체계적인 한글 연구를 위해 설립한 국문 연구소에서 한글 문법 연구. 1914년에 복통 호소하다 37세 나이로 요절.
   2. 배경 : 일제는 국권 강탈 후 일본어 보급. 교과서도 일본어, 학교에서도 사실상 일본어가 사용됨.
   3. 조선어 연구회 : 1921년에 주시경의 제자들이 한글 연구와 보급을 위해 조직 / 1926년에 한글날의 시초가 된 가갸날 제정 / 1927년에 동인지 ‘한글’ 창간했으나 1년 8개월 만에 종간
   4. 조선어 학회 : 이극로, 최현배 등의 주도로 조선어 연구회가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 / 1932년에 이전의 동인지를 계승, 발전한 잡지 ‘한글’ 재창간 /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공표 -> 오늘날 대한민국 정서법의 법전! /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 진행 -> 총독부는 사전 출판 통한 민족의식 고취 우려.
   5. 조선어 학회 사건 :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한 일제가 조선어 사전 편찬을 독립운동으로 간주 / 1942년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회원 체포 후 학회 강제 해산 /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압수됐으나 해방 후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
2. **전시 동원 체제와 민족 말살 통치**
3. 남면북양 정책
   1. 배경 : 1929년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기업, 은행 연쇄 도산, 대량 실업
      1. 대공황 ->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로 확산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

* 일본도 영국, 프랑스처럼 블록 경제를 형성하고자 시도

\*\*\* 블록 경제란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지역(블록)으로 통합해 지역 내 관세는 없애고 지역 밖에는 높은 관세를 매겨 봉쇄적인 무역정책을 취하는 경제권을 의미. 국내 산ㅇ넙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넓지 않았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블록 경제 형성만으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없었고 대외 침략을 시작한다.

* + 1. 내용 : 일본 내 섬유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에는 면화 재배, 북부에는 양 사육 강요 -> 일본 방직업자들은 공업원료를 싸게 공급받았지만 조선 농민 착취, 농촌 경제 피폐화
  1. 병참 기지화 정책
     1. 배경 : 일제는 애초부터 조선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고 만주를 넘어 중국 지배를 꿈꿔왔음.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자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무력으로 침공한 뒤 만주국을 세워 만주를 일본의 세력권으로 편입. 이후 군부가 정권ㅇ르 잡아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한 뒤 중일 전쟁(1937), 태평양 전쟁(1941) 일으키며 폭주.
     2. 내용 : 병참기지란 ‘대륙전진 병참기지’의 줄임말,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정책.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한반도에 대거 진출. 한반도 북부의 지하자원(석탄, 철) 수탈, 군수산업만 육성해 훗날 한국 경제에 악영향.
  2. 민족 말살 정책
     1. 목적 : 중일 전쟁 이후 조선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민족의식을 말살하려 함
     2. 내용 : 내선일체 - 내지(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다 / 황국신민화 –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자
     3. 활동 : 황국 신민 서사 암기, 궁성요배, 신사참배, 창씨개명, 일어 사용과 근로 봉사 강요
     4. 제3차 조선 교육령 : 초등교육기관 명칭을 황국 신민의 학교라 하여 국민학교로 변경

\*\*\* 아동용 황국신민 서사

1.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ㅇ
3. 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여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나영균, 일제 시대, 우리 가족은

봉안전이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사진과 교육 칙서. 선전 칙서를 모셔 놓은 조그만 사당인데, 그 앞을 지날 때면 누구나 최경례(가장 존경하는 뜻으로 정중히 하는 경례)를 해야 했다. 그룹으로 지나갈 대는 한 사람의 호령에 의해서 절을 하는데….

* 1. 물적, 인적 자원 수탈
     1. 배경 : 일제는 전쟁자원은 효율적으로 조달하고자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선포한 뒤 조선에도 적용
     2. 내용 : 전시국가의 총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물자, 산업, 인원, 단체, 출판, 교육 등을 통제하고 이를 징발하거나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이로써 한반도는 전시 수탈의 대상이 됨.
        1. 놋그릇, 놋대야, 농기구, 심지어 종과 불상 등 모든 금속류 공출 : 군수 물자 조달 목적
        2. 군량미 조달 위해 미곡 공출제 (곡식 헐값에 수탈), 식량 배급제 시행
        3. 국민 징용령(1939)으로 대규모 노동력 동원 -> 많은 조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
        4. 육군 특별 지원병제(1938) -> 징병제(1943.3) -> 학도 지원병제 (1943.10)
        5. 여자 정신대 근로령(1944) : 인력이 부족해지자 여성들도 공장에 끌고 가 강제노동
        6.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여 성착취